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 11:00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김지선 소피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지킵시다.

- 성당에 늦지 않게 오기
- 코로나 방역 수칙 지키기
- 일상 기도 생활화 하기(아침, 저녁기도, 식사 전, 후 기도)

(백)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2022. 12. 25.)

* 오늘 전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이가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강생의 신비로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을 보여 주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오늘을 경축합니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이사야 52,7-10): 7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너의 하느님은 임금님이시다.” 하고 시온에게 말하는구나.

8 들어 보아라. 너의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다 함께 환성을 올린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심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본다.

9 예루살렘의 폐허들아, 다 함께 기뻐하며 환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

10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시니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제2독서(히브리서 1,1-6): 1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2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3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그분께서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 하늘 높은 곳

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4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시어, 그만큼 그들보다 위대하게 되셨습니다.

5 하느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6 또 만아드님을 저세상에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 복음(요한 1,1-18): 1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2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시었다.

3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5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6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7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8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9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10 그분께서 세상에 계시었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11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12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13 이들은 혈통이나 육욕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14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15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

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 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16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17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18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 주셨다.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저희를 하느님의 모습으로 오묘히 창조하시고 더욱 오묘히 구원하셨으니 사람이 되신 성자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화답송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리의 샘이신 주님, 구세주를 보내시어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교회가 주님 사랑 안에 머무르며 세상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 이끌게 하소서.

2.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로의 주님,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겨레를 굽어살피시어, 세계 정치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남과 북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상생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3.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총의 주님,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다짐한 예비신자들을 돌보아 주시어, 그들이 굳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배우고 익혀 삶으로 실천하도록 도와주소서.

4.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행복이신 주님, 저희 본당의 단체들을 굽어보시어, 그리스도 강생의 신비를 체험하며 새 삶의 의미를 깨닫고, 모든 이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활동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영성체 후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오늘 태어나신 구세주께서 저희에게 하느님의 생명을 주셨으니 저희가 불사불멸의 은혜도 받게 하소서.

♪ 성가 ♪ (미사곡 바뀐 부분 포함)

- 입 당: 102 (어서 가 경배하세)
- 봉 헌: 108 (오 작은 고을 베들레헴), 104 (사랑하올 아기에수)
- 성 체: 105 (사랑의 아기 예수), 106(찬바람 스치는 마구간)
- 파 견: 101 (글로리아 높으신 이의 탄생)
- 특 송: 높이 계신 주께 영광(Echo Gloria)-Jon Paige

공지 사항

- ♣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 2023년 1월 1일(주일), 11:00
 - 미사 때 새해 맞이 안수 기도 있습니다.

- ♣ 교무금 안내
 - 올 한해 교무금을 납부해주신 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12월 안으로 미납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교무금액도 책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 차주 모임
 - 청년구역 모임(1월1일 미사 후, 사제관)

♣ 봉사자

	오늘(25일)	다음 주일(1월1일)
제1독서	김재의 미카엘	
제2독서	김지선 소피아	
복사	김익찬 암브로시오 / 박동현요한보스코	안서현 안젤라
복사	엄소연 라파엘라 / 안서현 안젤라	안태오 마태오
계단·화장실	김재의 미카엘	

♣ 성탄 밤미사 우리의 정성

- 성탄구유예물 €601.41